② 조생온주밀감

원구조생(原口早生)



▲ 원구조생

1. 육성경위

1969년 나가사끼현(長崎縣)에서 궁천조생보다 착색이 빠른 1주변이지를 발견하여 과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선발된 품종이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수세가 궁천조생에 비해 강하고 어린나무나 고접수인 경우 초기결실 전에는 잎이 크고 가지 마디길이가 길기 때문에 나무모양은 보통온주밀감과 같이 보이지만 결실되기 시작하면 흥진조생과 비슷하게 된다. 수세가 저하하거나 착화량이 많아 직화과를 결실시키면 둥근 모양의 과실이 되기 쉽다. 궁천조생보다 수세가 강하고, 꽃도 크고, 씨방(자방)이 충실하여 어릴 때부터 잘 결실한다.

과실특성 및 품질 과실비대가 양호하므로, 궁천조생에 비해 약간 대과이다. 고접한 나무에서 처음 결실될 때는 여름순이 결과모지가 되고 유엽화가 많이 착생하므로 편평한 과실을 생산하지만,



▲ 원구조생의 과실

3~4년이 지나면 약간 둥근(腰高果 : 요고과) 과실이 많아진다. 그러나 보통 과실 모양은 과형지수가 120~130으로 궁천조생보다는 편평하다.

과피는 궁천조생에 비해 매끄럽지만 과피두께는 궁천조생과 비슷하다. 과피착색은 궁천조생보다 약간 빠르고, 과육이 먼저 진한 주황색으로 변하는 과육선숙형으로 과피만 변이한 계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완전착색 후 수확하면 고품질의 과실을 수확하게 된다. 9월 하순에는 궁천조생보다 당도가 약 1 °Bx정도 높다.

완전착색이 이루어지는 10월 하순~11월 상순경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과즙의(90~ 98년 평균) 당도는 11.0 °Bx, 산함량은 1.15%이다.

숙기 및 출하기 원구조생은 극조생온주밀감으로서는 가장 늦은 만생형으로 오히려 궁천, 흥진조생과 같은 조생온주밀감으로 생각하여 출하를 할 생각으로 재배해서 완전착색하는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수확·출하한다.

해에 따라 11월 하순에 부피과 발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재배적지 선정 조생온주밀감 재배가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재배관리 **정지 · 전정** - 수세가 강하고 결실성도 안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정지를 실시하면 해거리현상이 적고 연년 안정된 생산이 가능하다. 결실량이 많아지면 결실한 가지가 늘어지고 그늘져 착색이 잘 안되므로 제1아주지와 제2아주지 간격을 넓게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과피착색이 균일하고 색깔도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충분히 자라면서 간격이 넓어지게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므로 절단전정보다는 솎음전정 위주로 전정을 실시한다. 그 외 기타관리는 궁천, 흥진조생 등 조생온주밀감 관리에 준하여 재배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관리 및 시비 조생온주밀감을 기준으로 봄, 가을 2회 비료를 준다. 편평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비대를 잘 시켜야 하므로 발아에서 개화까지 질소를 중심으로 한 액비의 엽면살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과실품질**

지 역 별	90% 착색일 (월. 일)	과실무게 (g)	과 형 지 수	과육비율 (%)	당 도 (°Bx)	산함량 (%)	당 산 비
제 주	10.30	96.5	124	79.0	11.0	1.15	9.5
일 본	11. 9	111.4	126	78.6	11.7	0.85	13.8

자료원 : 제주 - 제주도농업기술원 90~ 98년 조사성적 평균
일본 - 에히매현(愛媛縣) 과수시험장 93년 조사성적